

金 時 萬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作品研究論文

集積에 관한 陶磁造形 研究

2006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工藝學科

文 珍 洙

# 集積에 관한 陶磁造形 研究

金 時 萬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5月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工藝學科

文 珍 洙

# 認 准 書

文珍珠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

審査委員 \_\_\_\_\_ ㉠

審査委員 \_\_\_\_\_ ㉠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 論 文 概 要

우리의 전통 가운데는 협동심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풍습이 있다. 이런 풍습은 외침이나 농사일 같은 곳은 일 등 어려움에 봉착 했을 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곤 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인 현대에는 문화의 개인화가 가속화되면서 협동심보다는 개인 중심의 문화가 팽배해지게 되었다. 그로 인해 삶은 윤택해졌지만, 인간 중심의 공동체 인식이 부족한 시대를 살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인들의 편협한 정서와 심리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본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다. 한편, 심인적 부분을 조형적 의미로 재해석 하고자 하며, 형의 분리, 반복, 조합, 삽입 등의 조형 원리를 통해 의미 있는 공간 구성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제작 방법으로는 둘 이상의 단위체를 각각의 고유한 특성은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파괴하고, 결합과 반복을 통해 집적하여 이미지를 하나보다 좀 더 강하고 큰 이미지로 형태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소재의 질감을 자세히 표현하기 위해 반복적인 이미지 산출에 용이하며, 사물의 이미지를 차용(借用)해 표현하기에 적합한 석고 가압성형(Press Molding)을 하였으며, 또한 판성형 기법과 속 파기 기법을 병행하였다.

조형전개에 있어 소재의 발상은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대상인 벽돌, 사각, 병, 철근들을 통하여 표현하였다. 태토는 작품의 크기와 표면질감을 고려하여 형태를 유지하기에 용이한 조합토를 사용하였으며, 1차 850℃, 2차 1250℃로 산화소성, 3차 1050℃로 소성하였다.

본 연구의 조형적 담론은 공동체 의식이 개인주의로 인한 현대인의 고립감과 불안감을 극복시키며 나눔의 문화를 실천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을 희망한다.

# 目 次

## 論 文 概 要

I. 序 論 .....	1
1. 研究目的 .....	1
2. 研究內容 및 方法 .....	2
II. 本 論 .....	3
1. 集積의 意味 .....	3
2. 集積의 造形的 考察 .....	4
1) 게슈탈트(Gestalt) .....	4
2) ‘그랭이 기법’의 造形 探究 .....	6
3. 集積의 形態와 範圍 .....	7
4. 先 研究에 대한 事例 .....	11
5. 試作品 製作 및 說明 .....	13
1) 製作意圖 .....	13
2) 製作過程 .....	14
(1) 胎 土 .....	14
(2) 成 形 .....	15
(3) 釉 藥 .....	16
(4) 燒 成 .....	20
3) 試作品 說明 .....	21
III. 結 論 .....	33

## 參 考 文 獻

## ABSTRACT

## 表 目 次

【表 1】 조합토 조합비 .....	14
【表 2】 유약 조합비 .....	17
【表 3】 유약 조합비 .....	17
【表 4】 유약 조합비 .....	18
【表 5】 중화도 유약 .....	18
【表 6】 테라시질라타 조합비 .....	19
【表 7】 테라시질라타와 안료 혼합비 .....	19
【表 8】 소성 그래프 .....	20

## 圖 目 次

【圖 1】 분황사 기단 .....	9
【圖 2】 불국사 축대 .....	9
【圖 3】 마이산 돌탑 .....	9
【圖 4】 강신덕 作 .....	9
【圖 5】 Module의 집적이미지 표현 사례 .....	9
【圖 6】 안기모 作 .....	10
【圖 7】 조왕희 作 .....	10
【圖 8】 손창귀 作 .....	10
【圖 9】 김형모 作 .....	10
【圖 10】 지치건 作 .....	10

## 試 作 品 目 次

【試作品 1】 의존 I .....	20
【試作品 2】 존재 I .....	21
【試作品 3】 존재 II .....	22
【試作品 4】 의존 II .....	23
【試作品 5】 결속 .....	24
【試作品 6】 집적 I .....	25
【試作品 7】 합심 .....	26
【試作品 8】 집적 II .....	27
【試作品 9】 융화 .....	28
【試作品 10】 조화 .....	29
【試作品 11】 공존 .....	30
【試作品 12】 희망 .....	31

# I. 序 論

## 1. 研究目的

인간은 언제나 일치점을 찾을 수 없는 일상의 모호함 속에 존재하기도 하며, 이와 같은 상태는 자아의 내면적 세계 또는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존재론적 위기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이나 오해의 상황에서 소통의 단절로 인한 소외감과 고립감 등을 도자 예술로서 반추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과 현실상황에 맞춰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어울려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현대인의 정서와 심리를 조형적으로 묘사하였다.

본 연구는 형태가 지닌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속에 녹아있는 감정의 편린(片鱗)을 생각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발상은 개인적이지만, 개인의 집합체로서의 사회가 성립되면서 한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물질문명의 팽창으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이러한 현대사회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상을 파악하고 인간관계의 갈등 및 인간소외 등의 문제를 반영시킴으로서 존재와 공동체의 의미로 환기시키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오늘의 단초(端初)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研究内容 및 方法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인간과 인간사이가 더불어 존재한다는 관계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한편 더불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인간은 초라하거나 왜소함의 경험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인간의 절제할 수 없는 감정의 기복 앞에서 미래에 대한 영원과 안녕을 갈구하는 심인적 배경을 예술로서 상쇄시켜보고자 한다.

따라서, 분출하는 욕구와 절제를 정제된 경험으로 조형화하면서 예술의 사회적 인식에 부응하는 조형 활동을 보편적 인식 속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내용적으로는 한국의 조형의식 ‘그랭이 기법’ 을 적용 참고하고, 이를 토대로 지각형태의 심리를 통한 집적조형으로 분리, 반복, 조합, 적재(滴載), 재배치를 통한 다양한 구성미를 표현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의 내면적 조형언어에서 집적은 내면세계에 잠재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 사회와 조화를 이루고자함을 도상화(圖像化)된 기본형태를 파괴하면서 절단, 삽입, 조적되는 과정을 통해 상징적으로 나타내었다.

제작방법은 사물의 이미지를 차용(借用)해 표현하기에 적합한 석고 가압성형을 하였으며, 또한 판 성형기법과 속 파기 기법을 병행하였다.

조형전개에 있어 소재의 발상은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대상인 벽돌, 사각, 병, 철근등을 통하여 표현하였다. 태토는 작품의 크기와 표면질감을 고려하여 조합토를 사용하였다.

형태의 표면을 위해 선과 면의 각도 변화와 크기, 방향의 교차를 여러 각도에서 표현은 살아가면서 느꼈던 타인과의 소중함과 혼자가 아닌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 조형요소의 지각적 해명과 더불어 인간의 성장 발전, 정신적 활동을 모두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 Ⅱ. 本 論

### 1. 集積의 意味

인간은 삶을 살아가면서 속하게 되는 여러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접촉, 사회와의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이 야기되면서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인간은 존재론적 가치문제에 고민하고 현대사회에서 예외일 수 없는 인간 소외현상에 좌절하기도 한다. 이렇듯 인간존재에 관한 문제는 인간관계의 집적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集積의 사전적 의미는 ‘집적’ ‘모아서 쌓다/모여서 쌓이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유의어로는 집합(集合), 조합(調合) 등이 있다.

하나의 완전한 독립체로부터 시작된 인간은 또 다른 독립체인 다른 인간과 만나면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게 되었다. 이로써 ‘관계’라는 의미가 생겨나고 관계유지를 위하여 서로 상호작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회구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게 된 것이다. 이런 관계유지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인간과 외부세계와의 결속(結束)이다.<sup>1)</sup> 결속의 본 의미는 ‘덩이가 되게 묶음’이다.

개인일 때의 힘은 작지만, 이 작은 힘들이 모이면 하나의 커다란 군집을 이루는 것처럼 결합과 반복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하나보다 좀더 강하고 큰 의미로 전달하고, 현대인의 개인주의 모습이 팽배한 21세기에 공동체란 보다 나은 질적인 삶과 힘을 발산하기 위한 과정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은 당연하며,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서로의 유대감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1) 박유리, 『결속 이미지를 통한 심상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3, p.3

## 2. 集積의 造形的 考察

사람들은 어떤 사물이 눈에 비치는 것에 의해서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인지구조에 의해서 알게 되거나,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과 관념을 통하여 알게 된다는 것이다.<sup>2)</sup>

각 개체들의 이미지 조합에서 출발한 연구는 인간관계에 대해 집적의 조형적 형태로 구성요소 모두는 형상요소의 보탬에 따르면서 서로 어느 정도 분리하거나, 상당 정도는 융합한다. 개체들의 조합은 결합, 반복 그리고 새로운 방법 체계를 요구한다. 이들은 자유로운 형상과 그 본질 때문에 창조적인 직감을 해방시키고 풍부하게 하며 활기를 띄게 해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sup>3)</sup> 이러한 집적은 여러 경로를 거쳐 도입된 개체들의 이미지에 새로운 성격을 부여한 것이다.

형태 인지 심리학인 Gestalt와 한국 고유의 석축방식인 ‘그랭이 기법’을 참고하고, 인간에게 있어 올바른 유관관계의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 1) 게슈탈트(Gestalt)

게슈탈트란 독일어의 사물이 배치되는 방식 ‘조형’을 의미하는 Gestaltung과 어원이 같으며, 전체의 ‘Whole’ · 외형 ‘Configuration’ · 외관 ‘Form’ · 모습 ‘Shape’ · 무늬 ‘Pattern’ 등 형태 인지 심리학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의 시각적 대상을 지각하는 전체, 형상, 형태, 모습 또는 형 등의 뜻을 의미한다.

게슈탈트 심리학자 막스 베르트하이머(Max Wertheimer)<sup>4)</sup>에 의하면 개체는 대상을 지각할 때 그것을 산만한 부분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

2) 오근재 저, 『입체조형과 새로운 공간』, 미진사, 2001, p.26

3) B.클라인트 저, 오근재 역, 『인간의 시각 조형의 발견』, 미진사, 2001, p.34

4) Max Wertheimer : 유대계 독일의 심리학자, 게슈탈트 심리학의 창시자

있는 전체 즉, ‘게슈탈트’로 만들어 지각한다고 말한다. 게슈탈트 이론에서는 단순한 결합이 아닌 형태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체계화를 통해 지각되어지는 것, 전체적 윤곽이나 형태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5) 게슈탈트는 사물이 배치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물의 추상적 형태, 질료와 구별되는 형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의 구조 내지는 체제를 갖는 대상자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대상의 전체, 형태 또는 형을 의미하며 조직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구체적인 개체의 의미와 특징적인 실재의 의미를 지니며, 분리된 어떤 사물로서 존재하고, 그 속성의 하나로 형상이나 형태를 가진다. 게슈탈트는 조직화의 산물이며, 형태 시지각 분류들을 적용하여 조직화를 유도하는 과정이다.6)

#### - 단순성의 분류

형태로 하여금 가능한 단순하게 보여 진다는 것, 조직되도록 하는 조건이다.

#### - 등가성의 분류

인간의 심리는 본래 불완전한 상태이어서 균형적인 상태를 취하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비대칭에서 오는 강한 긴장감을 지각적으로 이완시켜 주는 원리이다.

#### - 유사성의 분류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안정된 관계로 묶어져 보이는 것, 물체가 오브제7)로서 동일화되는 근본적 단위형성에 힘이 작용 한다는 원리이다. 기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 성격의 역동성과 상호작용은 통합된 구조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5) Robert L.Solso 저, 신현성, 유상욱 역 『시각 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0, p.96

6) 고현정, 『Gestalt 조형원리를 활용한 WebDesign의 표현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석사논문, 2003, p.23

7) 오브제(Objet) : 전통적인 조각형식을 타파한 구성작품

## - 공동 운명의 분류

비슷한 것끼리 연속, 닫힌 모양, 같은 무늬 구조를 이루는 것이다. 즉, 근접한 것끼리, 유사한 것끼리, 닫힌 모양을 이루는 것끼리, 좋은 연속을 하고 있는 것끼리, 좋은 모양을 만드는 것끼리 연관성 배열되려 하는 경향을 나타낸다.<sup>8)</sup>

## 2) ‘그랭이 기법’의 造形 探究

경주 불국사 석축에는 ‘그랭이 기법’<sup>9)</sup>이라는 고유의 벽을 쌓는 기법이 있다. 자연석과 주변 인공적인 석벽사이의 유기적인 조화가 매우 인상적이다. 불국사의 사지(寺址)는 토함산 기슭을 깎은 단애(斷崖)에 석축을 쌓아 불국사 전체를 받들고 있는 기초인 석축은 여러 기둥과 가로 지른 장대석(長大石)으로 아름답게 구성하고, 그 공간은 돌로 채웠다.

‘그랭이’라는 기법을 써서 공학적으로 매우 견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천년이 지난 지금도 파괴와 붕괴, 흐트러짐 없이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sup>10)</sup>

오랜 시간 굳건함을 지키는 특징이 있는 ‘그랭이 기법’에 석축을 보며, 주변과 나와의 유관관계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는 가공되지 않은 돌을 인위적으로 쌓았으나, 본래의 자연미를 유지하는 선조들의 ‘미의 관조’를 변용하여 참고하였다.

8) 이재애, 『Gestalt 이론을 활용한 조형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1, p. 15

9) 그랭이 기법: 분황사 기단, 불국사 석축, 석가탑 지대석에서 보이는 자연석과 자연석을 쌓은 기법으로 특정 바위를 생긴 대로 놓아둔 채 바위의 형태에 따라 다듬어 가면서 맞추는 것이다. 기둥과 주춧돌 사이의 간격을 없애고, 밀착시키기 위해 주춧돌을 생긴 모습 그대로 두고 나무기둥 밑둥을 도려내어 밀착시킨 것이다.

10) 삼성문화재단 월간호, 『Culture&I』 - 문화와 나, 삼성문화재단, 1997, P. 31

### 3. 集積의 形態와 範圍

기하학적 형태는 같은 형태라도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각 개체들의 추가와 서로 다른 배합은 그 느낌을 다르게 하는 조형적 요소를 갖고 있다.

기하학적 형태란 복잡한 자연물로부터 간결한 형태의 경향성이 이루어낸 인공적인 추상의 형태이며, 인간의 이지적인 사고체계에 의해서 창조된 자연의 은유적 형태 혹은 정제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하학적 형태는 일체의 장식성을 결합 시킬 수도 있고,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횡으로 펼치거나 펼친 위로 집적하여 높낮이를 주고 다른 한 부분으로 다른 단위체로서 접목시키거나 이 형을 거울에 비친 형으로서 다양하게 변화시켜 결합 시킬 수 있다.<sup>11)</sup>

기하학적인 형태는 구조적 간결성을 요구하는 시지각의 필요조건이며 보는 이와 대상물 사이의 시각전달이 가장 빠른 객관적인 조형언어이다.

단순한 형태가 분리, 결합을 통해 배열되었을 때 형이 완전히 융화되거나 형과 형 사이에 간격을 두고 결합될 수 있는데 개체간의 공간 없이 완전한 다른 형태로 결합시켜 만들 때는 동일한 형을 그대로 결합 시킬 수도 있다.

또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횡으로 펼치거나 펼친 위로 集積하여 높낮이를 주고 다른 한 부분으로 다른 단위체로서 접목시키거나 이 형을 거울에 비친 형으로서 다양하게 변화시켜 결합 시킬 수 있다.

또한, 단위 형태 사이에 공간을 두고 결합시키는 방법에는 이보다 더 많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단위 형태 하나의 개체 위에 단위 형태를 놓고 그 밑에 세 번째 단위 형태를 놓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상, 하, 좌, 우 어느 방향이든지 단위 형태를 원하는 대로 증가 시키면서 적재 할 수 있다.

조형적 의미의 단위체 결합에 의한 표현이란 어떤 형태를 비슷하게 재현하는

---

11) 아니엘라 아페 저, 이희숙 역, 『미술과 상징』, 서울 열화당, 1995, p.48

것이 아니라 창조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위를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조형감각이 있어야 하고 주어진 형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sup>12)</sup>

따라서, 단위를 이루는 하나의 단위 형태는 단순하지만, 단일 작품과는 달리 集積 되었을 때의 조형성을 고려하였다.

---

12) 김선희, 『조형적 의미의 Piece 조립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89, p.9~11

## 참 고 도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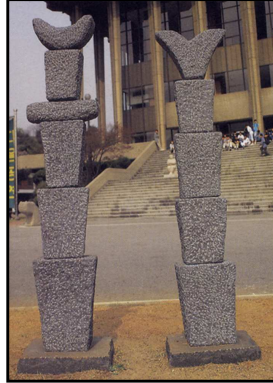
【圖1】분황사 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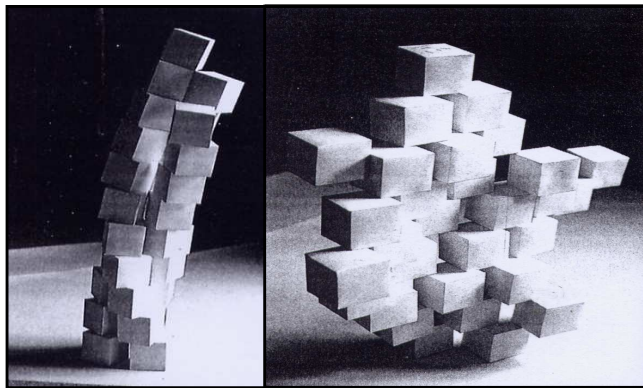
【圖2】불국사 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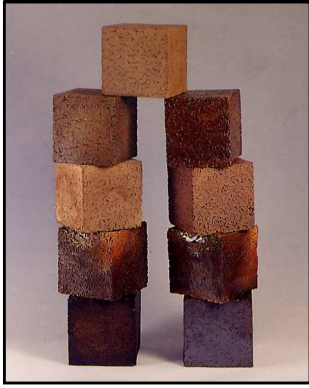
【圖 3】마이산 돌탑



【圖 4】집적 <강신덕작>  
1999 Stone



【圖 5】Module의 집적이미지 표현사례 Paper



【圖 6】積9108 <안기모 作>  
1991 Clay



【圖 7】아이들 <조왕희 作>  
2003 Clay



【圖 8】The Golden Legend <손창귀 作> 2004 Clay



【圖 9】의자 <김형모 作>  
2005 Metal



【圖 10】결속 <지치건 作>  
1991 Clay

#### 4. 先 研究에 대한 事例

우리 선조들의 건축 공법 중에 ‘그랭이’ 라는 고유의 벽을 쌓는 기법이 있다. 대표적으로 경주 불국사 축대와 분황사 기단, 석가탑 지대석에서 보이는 자연석과 자연석을 쌓은 기법으로 특정바위를 생긴 대로 놓아둔 채 바위의 형태에 따라 다듬어 가면서 맞추는 것이다. 기둥과 주춧돌 사이의 간격을 줄여, 돌을 쌓는 기법이다. 【圖 1,2】

본 연구자는 파괴와 붕괴를 없으며, 오랜 시간 굳건함을 지킬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그랭이 기법’ 의 석축을 보며, 주변과 나와의 유관관계를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특징의 형태는 Module의 집적에 이미지로 표현된 사례에서도 볼수 있다. 【圖 5,6】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양인들의 종교, 문화 속에는 돌탑을 쌓으며 기도하는 문화가 있다. 돌탑을 쌓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아랫돌과 윗돌이 닿아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밑 부분은 크고 넓직한 돌들을 엮어 놓기만 해도 흔들림이 없지만, 층이 높아질수록 돌중 하나만 빠지거나 잘못 되도 무너지기 마련이다. 이는 공동체 의식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서로의 불신과 고립감이 발생하였을 때의 단체생활은 함께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속담에 「공든 탑도 무너지라」 이는 ‘오랜 시간 공들여 쌓은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진안 마이산에 수많은 돌탑은 염원과 기도 속에 세월과 비바람에 조금의 미동 없이 오랜 시간을 유지해왔다. 【圖 3,4】

이처럼 철저한 계획과 따뜻한 배려로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양보와 믿음으로 합심했을 때, 이는 더 큰 미래의 가능성과 기대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 속에서 서로를 의지해 주고, 이루고자 하는 뜻이 커질수록 믿고 따르며 협력하는 마음이 생활화 된다면, 삶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圖 7,10】

손창귀의 작품에서는 물고기를 소재로 표현하였고, 사회 속에는 개인보다 전체가 하나 되었을 때 더 큰 이미지로 보일 수 있는 구성체들이 나타내는 질서정연함과 하나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圖 8】

김형모의 작품에서는 비록 주위에서 흔히 접하고, 하찮은 물체지만, 조각이 모여 의자라는 형태를 이루었을 때는 또 다른 커다란 의미와 힘을 상징하고 있다. 【圖 9】

이는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형태의 의미와 인간 삶의 성장발전 과정에 따른 형태의 의미를 고찰하고 조형적 사고의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여 재료와 기법에 의한 형태를 고찰해 보고 싶은 의도 때문이다.<sup>13)</sup>

선 사례를 참고 하여 본 연구에 참고하였다.

---

13) 김인권 저, 『조형 형태론』, 미진사, 1994, p.10

## 5. 試作品 製作 및 說明

### 1) 製作意圖

인간은 스스로의 모습을 완성시키려 하며 조화로운 사회 속에서 안락한 삶을 살아가길 꿈꾼다. 또한 현대 사회 속의 한 개체이며 정신적이고 가치 있는 세계를 꿈꾸는 본능을 지닌 존재이다.

개인은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비교를 통해 동기나 목적의식이 형성되며 그 안에서 갈등하고 또는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 보다 더불어 살아가는 때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다. 이렇듯, 서로가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인식이 생활화되길 바라며, 관계의 이미지들을 벽돌, 병, 철근, 사각형과 같은 일반적 사물로 조형화 하였다.

첫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사고하는 존재이다.

이는 인생에 있어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참 모습을 주관적인 이미지의 조형예술로 승화시키고자 한다.

둘째, 사회는 ‘개인’ 이 아닌 ‘전체’ 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올바른 인간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각 개인이 서로 조화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조형언어로 구축해 보고자 한다.

셋째,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형태의 의미와 인간의 성장발전 과정에 따른 형태의 의미를 고찰하고 조형적 사고의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재료와 기법에 의한 형태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로써 인간관계에 미치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작업의 기반이 되는 본인의 내면세계를 작품 구상에 도입하였다.

## 2) 製作過程

### (1) 胎 土

태토의 선정은 본 작품연구 형태를 유지하기에 용이하며, 작품의 크기와 거친 질감과 접합부분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샤모트가 함유된 조합토를 사용하였다. 선정된 태토의 특성은 다공질 태토임에도 불구하고 점성이 좋고, 성형성이 좋으며 건조와 소성시에 발생할 수 있는 수축과 형태의 변형, 균열 등을 최소로 줄이고자 하였다.

〈表 1〉 조합토 조합비

(%)

원 료	조 합 비
장 석	5
규 석	15
도 석	20
중 국 점 토 <sup>14)</sup>	35
카 오 린	15
규 회 석	3
샤 모 트	7
計	100

※ 제공 : 경주 동영산업 제토 공장

14) 중국점토 : '홍콩점토'라 불리었으나 중국과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교역이 이루어진 후 중국에서 수입한 흙으로서 '중국점토'라 불린다. 점토의 특성은 점력이 강하고, 내화도가 1200℃ 내외 정도이며, 색상은 검정색을 띠고, 소성 후에는 백색도가 나타난다.

## (2) 成 形

작품의 소재에서는 주로 기하학적 형태를 사용하였다. 이는 객관화 될 수 있는 형태로서 재현이 가능하고, 극도로 단순화되어진 형태로 보는 이와 대상물 사이의 시각전달이 가장 빠르며 새로운 형태를 창조해 내는 데 매우 용이하다.

석고 틀을 제작하여 반복, 축소, 확대의 재구성의 작업을 통해서 응용하였고, 각 테마를 구성하고 있는 벽돌, 사각, 병, 철근의 다양한 효과를 내기 위해 소재의 질감과 반복적인 이미지 산출에 용의한 석고 가압성형<sup>15)</sup>을 하였다.

거친 질감표현을 샤모트와 돌을 이용하여 사용 형을 제작하였으며, 원형 제작 시 태토의 건조수축률과 소성수축률을 감안하여 틀 제작에 있어 10% 확대 성형하여 형태에 따라 분할하고, 접합시켰다.

석고 가압성형 시 동안 증발될 것을 예상하여 충분한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태토에 상태를 유지시켜 절단, 조적하여 성형하였다. 거친 질감이 필요한 곳은 표면이 다른 돌을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작품 성형 시 접합 부위의 변형과 균형을 고려하여 성형 시간을 두어 제작 후 그늘에서 충분히 건조 하였다.

---

15) 가압성형(Press Molding) : 압축성형이라고도 하며 석고 틀이나 나무 틀, 금속성 틀 또는 그 이외의 기본틀(거푸집)에 점토를 눌러서 형태를 만드는 방법이다.

### (3) 釉 藥

벽돌과 사각의 형태의 하나하나에 단단하고 무거운 느낌과 물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흑유와 골드망간유, 적철유, 크롤링유를 사용하였고, 병 소재로 집적한 작품은 유약 두께의 변화를 주어 시노유를 분무 시유하였다.

고화도 유약과 중화도 유약의 중첩시유와 표면의 질감표현을 위해 테라시질라타<sup>16)</sup>에 안료를 첨가하여 유색의 무료함과 사실적인 색감이 아닌 변형된 형태에 색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현대미술에서 보여 지는 화려함이 아닌 단순한 형태속의 절제된 듯한 색감을 표현하고자 어두운 색의 유약을 시유, 테라시질라타와 고화도 안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유색과 자연스러운 질감표현이 가능하였다. 혼합 실험을 선행하여 고화도 안료를 첨가하여 발색과 안착에 좋은 효과를 얻었다.

---

16) 김병역 저, 『도예장식기법』, 2000, 태학원, p.118

테라시질라타(Terra-Sigilata) : 처음에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와 로마의 도공들이 얇고 광택이 있는 도자기의 표면질감을 얻기 위해 사용하였다. 볼 클레이(Ball clay)와 물과 탄산소다를 섞은 후 1주일 정도 놓아두었다가 윗물을 제거하고 남은 중간의 1/3정도의 흙물이 바로 테라시질라타이다. 소성온도는 1050℃~1100℃ 정도에서 산화염으로 저온 소성한다.

〈表 2〉 유약 조합비

(%)

원료	종류	흑유	적철유
인도 카리장석 ( $K_2O \cdot Al_2O_3 \cdot 6SiO_2$ )		40	42.4
금산 석회석 ( $CaCO_3$ )		19	6.3
결성 활석 ( $3MgO \cdot 4SiO \cdot H_2O$ )		·	5.4
인도네시아 카오린 ( $Al_2O_3 \cdot 2SiO_2 \cdot 2H_2O$ )		20	5.8
부여 규석 ( $SiO_2$ )		6	18.9
산화제2철 ( $Fe_2O_3$ )		9	11.8
골회 ( $Ca_3(PO_4)_2$ )		·	9.4
산화크롬 ( $Cr_2O_3$ )		3	·
산화망간 ( $MnO_2$ )		3	·
計		100	

〈表 3〉 유약 조합비

(%)

원료	종류	망간골드유	크롤링유
인도 카리장석 ( $K_2O \cdot Al_2O_3 \cdot 6SiO_2$ )		5	21.2
금산 석회석 ( $CaCO_3$ )		·	8.9
인도네시아 카오린 ( $Al_2O_3 \cdot 2SiO_2 \cdot 2H_2O$ )		·	24.6
부여 규석 ( $SiO_2$ )		·	32
산화동 ( $CuO$ )		5	·
산화코발트 ( $Co_2O_3$ )		3	·
탄산마그네슘 ( $MgCO_3$ )		·	13.3
산화망간 ( $MnO_2$ )		35	·
옹기토 (Red Clay)		48	·
볼 클레이 (Ball Clay)		4	·
計		100	

〈表 4〉 유약 조합비

(%)

원료	종류	매트백유	시노유
인도 카리장석( $K_2O \cdot Al_2O_3 \cdot 6SiO_2$ )		40	15
금산 석회석( $CaCO_3$ )		16	.
인도네시아 카오린( $Al_2O_3 \cdot 2SiO_2 \cdot 2H_2O$ )		3	5
탄산 바륨( $BaCO_3$ )		28	.
산화티탄( $TiO_2$ )		13	.
네피라인 사이나이트(Nepheline Syenite)		.	45
스포듀민(Spodumene)		.	15
볼 클레이(Ball Clay)		.	15
소다회( $Na_2 CO_3$ )		.	5
計		100	

〈表 5〉 중화도 유약

색 상	Black
번 호	T-813

※제조사 - 한국 석산요업

〈表 6〉 테라시질라타 조합비

(%)

원 료	조합비
볼 클레이 (Ball Clay)	32.35
탄산나트륨 (Na <sub>2</sub> CO <sub>3</sub> )	2.0
물 (H <sub>2</sub> O)	65.65
計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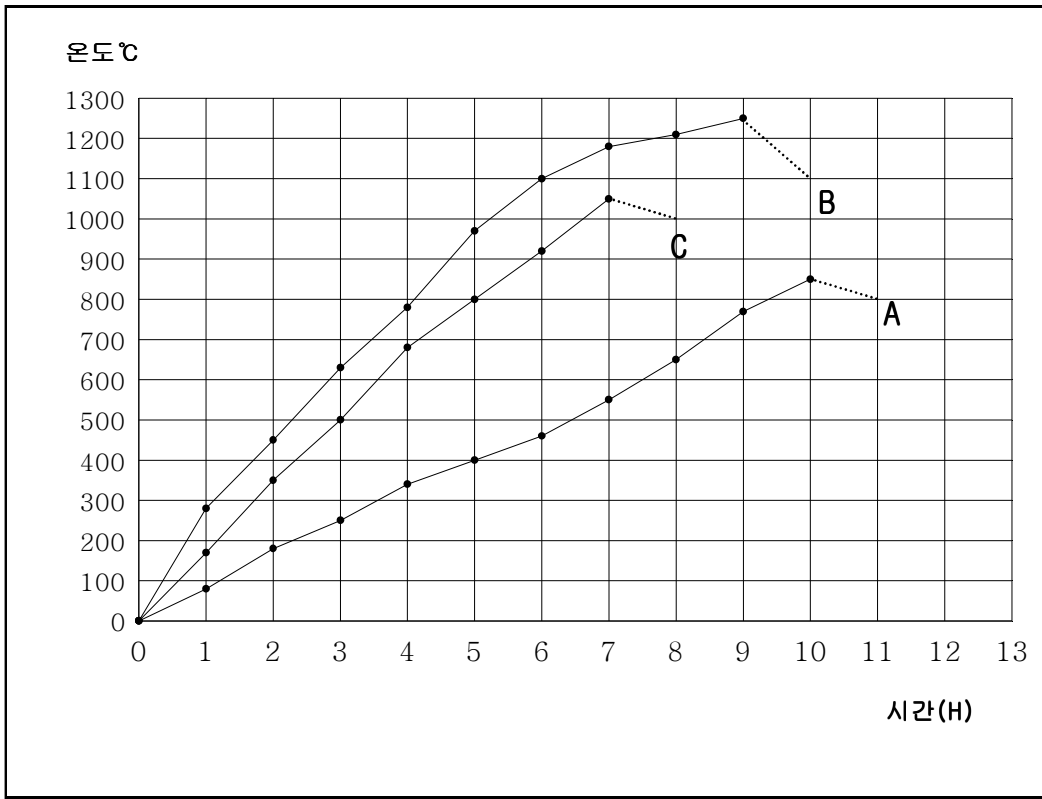
〈表 7〉 테라시질라타와 안료 혼합비

(%)

색상 (번호) \ 혼합비	테라시질라타	안료
(H-460) Brown	90	10
(H-710) Gray	85	15
(H-430) Orange	90	10
(H-200) PR-Yellow	85	15
(H-610) Siskin Green	85	15
(H-120) T-Blue	90	10

※제조사 - 한일안료(주)

〈表 8〉 소성 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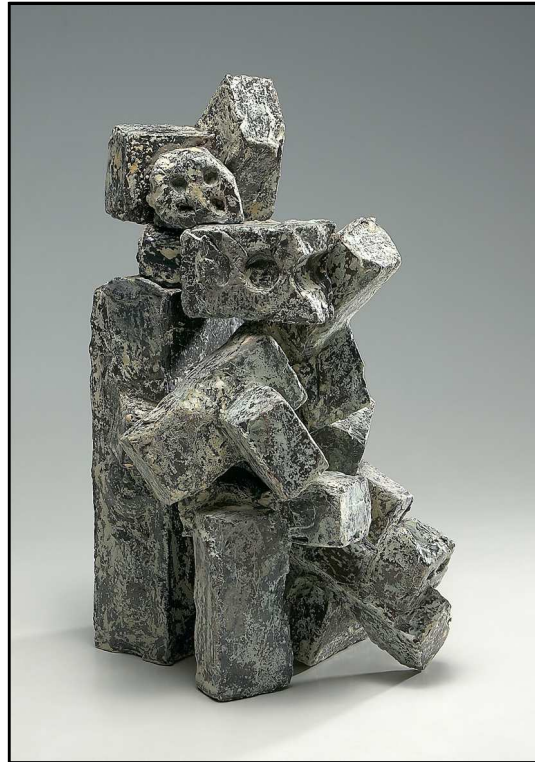
A: 1차소성 · B: 2차소성(산화) · C: 3차소성

(4) 燒 成

소성은 0.5m<sup>3</sup>, 1.0m<sup>3</sup> 도염식 가스 가마를 사용하였으며, 1차 소성은 10 시간동안 850°C까지 소성하였고, 2차 소성은 9시간동안 1250°C로 산화 소성 하였으며, 망간골드유가 높은 온도에서 흐르는 현상을 우려하여 가마내의 하단부에 재임하였다. 3차 소성은 7시간동안 1050°C까지 소성하였다.

### 3) 試作品 説明

#### 【試作品 1】 의존 I



적철유 1250℃ · 테라시질라타(H-710,200)1050℃ · 40×32×H60cm

현대인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집단과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 첨단과학이 발달되어 좋은 면도 있지만,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과거보다 삶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이나 오해, 업무로 인해 소통과 단절의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종교 , 취미생활로 육체적, 금전적, 정신적으로 서로 의존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형상을 의도에 따라 집적 배열하고, 3분의1 이상의 파괴와 집적의 형태로 변화를 나타내어 성형하였다.

【試作品 2】 존재 I



흑유, 매트백유 1250℃ · 중화도유약1050℃ · 51×29×H23cm

천년이상의 시간동안 파괴와 붕괴를 없으며, 오랜 시간 굳건함을 지킬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그랭이 기법’의 석축을 보며, 주변과 나와의 유관관계를 깨닫게 되었다.

서로의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충고와 합심으로 살아간다면, 개인보다는 더 큰 힘과 정당한 의미를 포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를 사각의 형태로 표현하였고, ‘그랭이 기법’의 동그란 돌 형태는 각각의 개인을 나타내었다.

### 【試作品 3】 존재Ⅱ



흑유 1250℃ · 테라시질라타(H-430)1050℃ · 47×26×H37cm

‘나는 다른 이들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 되어질까?’ 라는 의문은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모든 이들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인원의 사람을 만난다. 그중 1초만 스친 사람, 또는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낸 사람 등.

그들에게 빛쬐진 이는 모두 나로 기억되어질 것이다.

각각의 사람들의 기억들이 합해졌을 때 그것은 나의 존재이다.

오늘도 존재를 가치 있게 쌓아가며, 하루를 소중히 보낼 것을 희망하는 의미를 담아 조형화하였다.

#### 【試作品 4】 의존Ⅱ



흑유, 크롤링유 1250℃ · 테라시질라타(H-200) 1050℃ · 56×24×H68cm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이나 오해의 상황에서 본인은 소통의 단절로 인한 소외감과 고립감 등을 느끼는 반면 똑같은 인간이기에 동일한 생각을 가진 타인들로 인한 인간적인 감성을 함께 공감하며 산다.

존재의 상실감을 극복하고 타인과 사회 속에서 그들과 모든 외부세계와 조화롭게 살아가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조형화 하였다.

큰 벽돌의 양 바깥쪽 면은 흑유에 크롤링유를 두껍게 시유하여 존재의 상실의 표현으로 갈라짐을 극대화 시켰다.

【試作品 5】 결속



망간골드유, 흑유 1250℃ · 34×28×H67cm

개인과 개인이 서로 하나 되어 선을 이루는 인간관계를 통해 사람들과 융화되어가면서 차츰 밝아지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작품이다.

색상의 선택은 환한 모습 속에 외로움과 고립된 어두운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금빛의 망간골드유와 일부사각에 흑유로 시유하였다.

【試作品 6】 집적 I



전면 후면  
 망간골드유 1250℃ · 테라시질라타(H-430,710,460) 1050℃ · 44×46×H66cm

‘나’ 라는 바탕아래 가족, 친구, 친척 등 커다란 집합체를 이루며 살아간다. 인생을 사는 것은 무언가를 얻고,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들을 스쳐가며 흔적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곁에 있을 때는 개개인 존재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여 타인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다.

본 작품에서 벽돌은 개개인의 존재로 등장시켰다. 한 사람 정도쯤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 역시 무너지고 만다. 서로가 함께 기대주고 잡아줬을 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試作品 7】 합심



적철유 1250℃ · 테라시질라타(H-430,610,120) 1050℃ · 36×34×H56cm

개인일 때의 힘은 작지만, 이 작은 힘들이 모이면 하나의 커다란 균집을 이루는 것처럼 현대인의 개인주의 모습이 팽배한 21세기에 공동체란 보다는 나은 질적인 삶과 힘을 발산하기 위한 과정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은 당연하다.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서로의 유대감은 필요하다.

좋은 유대관계가 발전되어 희망찬 미래를 비추길 바라며 성형하였다.

## 【試作品 8】 집적Ⅱ



망간골드유 1250℃ · 테라시질라타(H-460,430) 1050℃ · 33×35×H58cm

인간은 개인적이지만, 개인의 집합체로서의 사회가 성립되어 그 시대를 살아간다. 한편 개인은 존중되지 않고, 사회조직이 우선하여 그 조직 속에 개인이 있는 경우도 있다.

‘나’ 보다는 ‘우리’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한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고, 영향을 주며 살아간다. 세상을 혼자서 살아갈 수 없으며, 주변 사람들에 소중함을 느끼며, 융화되며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어 가야한다는 바램을 담아 작업 속에 투영해 보았다.

【試作品 9】 용화



전면

후면

시노유 1250℃ · 35×28×H42cm

공동사회에 있어 문제는 서로의 의견과 오해로 인한 상실감과 소외감이다. 여러 사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용화와 협력이 많이 필요하다. 더불어 사는 사회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여 하나 되어 순환 되어졌을 때 더욱 발전할수 있을 것이다.

형태는 재활용의 마크에서 착안하였다. 시간과 횡수를 떠나 재활용되어 계속 순환하는 뜻을 부각시켜 병이라는 소재를 마크의 형태로 집적시켜 유약의 두께에 따라 다른 색을 띄는 시노유를 분무 시유하였다.

【試作品 10】 조화



흑유, 크롤링유 1250℃ · 테라시질라타(H-710) 1050℃ · 22×20×H48cm

사람은 제각기 다른 환경과 경험 속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고, 욕구를 추구해 가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개인’ 이 ‘전체’ 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올바른 인간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전체 안에서 각 개인이 서로 융화되고 조화로우며 때 그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영역으로 인지될 수 있는 것이다.

## 【試作品11】 공존



흑유1250℃ · 중화도 유약 1050℃ · 60×78×H50cm

물질문명의 가져다주는 혜택을 받으며 개인화되면서 살아가는 사회적 문제를 나타냈다.

한사람 한사람이 서로 주변사람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모습, 쌓아져 가는 구심점은 인간의 나약한 심정을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선 돈독한 공동 사회적 모습을 나타냈다.

입체가 보는 시점에 따라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면 표면의 느낌을 살리고, 선과 면의 각도 변화와 크기, 방향의 교차를 여러 각도에서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試作品12】 희망



매트백유, 적철유, 흑유 1250℃ · 36×36×H77cm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현대인들의 의식 변화가 많이 전문화되어지고 개인마다의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하게 되어 쉽고 편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사회 속에서 서로를 돕고, 의지해주는 더불어 사는 삶을 생활화 했을 때 그 공동 사회는 개인적인 삶에 비해 더욱 크고 밝은 희망의 빛을 비출 수 있을 것이다.

### Ⅲ. 結 論

인류의 진정한 발전은 그 중심에 공동체적 인식이 자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로 인해 개인화가 가속화 되면서 사람 중심의 문화가 물질 중심의 문화로 이전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集積을 통해 우리 시대를 조형적으로 반추해 보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인간들이 일상을 통하여 겪었던 많은 경험들과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 볼 수 있는 모습들을 점토의 물성을 사용하여 상징적인 형태로 가시화하여 내적 의미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조형화하였다.

둘째, 전통의 석축 ‘그랭이 기법’이 제작과정에 훌륭한 소재가 되었다. 전통의 문화도 현대 도자예술에 ‘태토’라는 재료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그 표현방법이 무궁무진하며, 세부적으로는 ‘그랭이 기법’ 형태미를 참고하여 전통미를 현대화 재해석 하고, 조형성과 기술성이 가미된 예술세계를 추구할 수 있었다.

셋째, 반복 제작이 가능한 석고 틀을 이용한 가압성형과 통해 작업한 집적 작품은 그 작품 주위의 비가시적인 공간까지 흡수하여 조형작품을 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았다.

오늘날의 인간이 내일을 향하여 무언가를 구하려고 하는 전진적인 의욕을 조형을 통하여 창출해내는 표현방법이다. 이처럼 삶에서 접하는 대상이 익숙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끊임없는 연구와 발상의 자세로 다가설 때 조형적인 언어로 발전되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 참 고 문 헌

- 김미옥 외, 『입체조형의 이해』, 그루(백숙자), 2000
- 김병익, 『도예장식기법』, 태학원, 2000
- 김인권, 『조형 형태론』, 미진사, 1994
- 오근재, 『입체조형과 새로운 공간』, 미진사, 2001
- 오병권, 『디자인과 이미지 질서』,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9
- 박재린, 윤대혁, 『인간관계의 이해』, 서울 하이 경영사, 1997
- 삼성문화재단 월간호, 『Culture&I』 - 문화와 나, 삼성문화재단, 1997
- 함경도, 박경애 저, 『조형 공간구성 연습』, 서울산업대학교출판부, 1998
- 가드 클락, 신광석 역, 『도자예술의 새로운 시각』, 미진사, 1993
- 아니엘라아페 저, 이희숙 역, 『미술과 상징』, 열화당, 1995
- 모리스드소마레즈 저, 이준희역, 『기초조형-역동적인 시각형태』, 예경, 2000
- Robert L.Solso 저, 신현성, 유상욱 역, 『시각 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0
- B.클라인트, 오근재 역, 『인간의 시각 조형의 발견』, 미진사, 2001
- 김선희, 『조형적의미의 Piece 조립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석사논문, 1989
- 이재애, 『Gestalt 이론을 활용한 조형표현 연구』, 이화여대석사논문, 2001
- 박유리, 『결속 이미지를 통한 심상표현 연구』, 성신여대석사논문, 2003
- 고현정, 『Gestalt조형원리를 활용한 Web Design의 표현연구』, 경희대학교석사논문, 2003

# ABSTRACT

## A Study on the Ceramic by the Accumulation

Mun, Jin Su

Dept. of Craf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the agricultural age, it had been essential for people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within their community.

Accordingly, many old customs emphasizing cooperative spirit had naturally prevailed.

On the other hand, the modern industrial society has introduced the culture of individualism. Even though industrialization brought us economic prosperity, the modern societies do suffer from a lack of community-mindedness.

This study is intended to help people in getting a new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cooperative spirit in our society.

In order to express psychological states of mind, the study utilizes principles of figurative arts such as separation, insertion, and repetition.

Keeping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element, the study integrates

component parts through bonding and repeating, which finally results in a one big figure. Using the plaster press molding technique which is widely used in repeating and copying images, the study tries to express the feel of materials in detail.

The presentation way was to make a accumulation in a way of gesso pressing forming technique by using the mixed soil, and to go through the procedure of connecting, and partially to use the plane forming technique and the digging-out technique.

This researcher calcined at 850°C, and secondary oxidative calcination 1250°C, third 1050°C were used.

This work is expected not only to help people in overcoming feelings of isolation and insecurity, but also to catalyze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e of sharing which can keep the society intact.